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7. 27(금) / 총 1매(본문 1매)
담당 부서	물류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완국, 사무관 김대성 • ☎ (044) 201-4017, 4025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‘택배료 신고제 땀 제살깎기 경쟁... 기사 처우만 나빠질 수도’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화물을 집화·분류·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(택배업체)에게 요금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  - 이와 관련하여, 택배 신고요금제의 도입은 택배업체별 적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택배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사항으로서 운송 원가가 공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  - 현재, 입법예고(‘18.5.18~6.29)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업계, 관계부처 등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, 향후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.

### 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 7.27) >

- ◆ 택배료 신고제 땀 제살깎기 경쟁... 기사 처우만 나빠질 수도
  - 원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출혈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
  - 택배 원가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대성 사무관(☎ 044-201-40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